

詩誌

# 종 소 리

제 104 호

2025 년 10 월 가을호

시지

# 종 소 리

104 호



2025 년 가을호

(104 호)

## 차 례

|           |             |
|-----------|-------------|
| 이제야 보셨습니다 | 강 명 세 ( 4 ) |
| 원         | 채 덕 호 ( 6 ) |
| 희미해       | 김 윤 순 ( 7 ) |
| 기운차게      | 김 려 우 ( 8 ) |
| 오빠와 함께    | 허 옥 녀 (10)  |

자 구 오 사 구 린 / 자 켜 바 켜 가 사 자 켜 구

|               |            |
|---------------|------------|
| 중심            | 김 윤 순 (12) |
| 대동강아 나의 어머니강아 | 김 철 혁 (13) |
| 신보를 읽던 밤      | 김 성 철 (16) |
| 코노래           | 김 애 미 (18) |
| 빛나라, 고베초중 !   | 심 달 야 (20) |

|           |            |
|-----------|------------|
| 맨날 같은 말   | 박 태 진 (21) |
| 포동포동      | 하 의 배 (22) |
| 소금        | 리 유 실 (24) |
| 유끼오       | 진 승 원 (26) |
| 《한솔밥》 친구들 | 서 정 인 (28) |

자 나 오 사 나 은 / 자 키 바 해 가 나 아 오 나

|                    |            |
|--------------------|------------|
| 후래삼배               | 리 일 렬 (30) |
| 정성의 향기             | 최 영 실 (32) |
| 그립던 품으로            | 양 금 녀 (35) |
| 잇는다                | 허 옥 녀 (38) |
| 애국의 붓을 놓지 않은 로시인에게 | 변 홍 영 (40) |

## 이제야 보셨습니다

- 조세이(長生)탄광에서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된 소식에 접하여-

강 명 세

《할아버지》들

이제야 저희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장장 80 여년 세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겠습니까

그날도 고향의 부모형제 그리시며

가혹한 일터로,

깊은 바다속으로 들어가셨겠지요

1942 년 2 월 3 일

빛 한점 없는 캄캄한 바다속 깊은 곳에서

온갖 원과 한 품으시고

혼이 되신 《할아버지》들

그 원과 한이

파도가 되고 바람이 되어

우리 후손들이 끝내

《할아버지》들 모시러 왔습니다

《할아버지》들 들리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할아버지》들 보이십니까  
8 월의 따가운 눈부신 해살이

이제야 해빛을 보셨습니다  
이제야 후손들이 뵈웁니다

이땅에 피맺힌 조상들의 원과 한을  
우린 대대손손 기억하렵니다

할아버님들,  
이땅의 맑은 공기 한껏 들이쉬시고  
고이고이 잠드십시오

## 원

채 덕 호

벽에 부딪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슴없이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싶다  
내가 잡은 그의 손  
다른 한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꼭 있을테니까  
혼자가 둘, 둘이 셋, 셋이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원이 되어  
사랑이 이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지구에서  
모두가 살았으면

## 희미해

김 윤 순

시력이 떨어져서 그럴가요  
안경이 없어서 그럴가요  
눈앞이 희미해  
세상이 흐릿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종착점이 어딘지

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  
로안이 와서 그럴가요  
돋보기가 없어서 그럴가요



## 기운차게

김려우

아침저녁으로 가을바람 부니  
몸과 맘 시원시원  
찌는 더위 가셔지는듯 한  
요 며칠

휘발유를 짹 채워  
갓 《기름》도 갈아주어  
새 힘을 키운  
자동차를 몰 때의  
그 마음인양

부지런히 돌고 도는  
선풍기를 끄어 해쳐  
먼지를 털고 닦아준 후에  
바람을 세게 내보내는 날개의  
그 모습인양

나이탓으로 하지 말고  
계절탓으로도 하지 말며  
나날이 씨원씨원  
세월을 기운차게

## 오빠와 함께

허 옥 녀

내 어릴적

강놀이하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오빠의 수영바지 꼭 잡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내 초급부시절

분회장하시던 아버지를 도와  
야간학교에서 가창지도할 때  
언제나 옆에는 오빠가 있었다

내 중급부시절

진로문제로 고민의 나날 보낼 때  
나아갈 길 바로잡아준것은  
오빠가 보내준 진정어린 편지였다

내 어른이 되어 엄마가 되었던만

큰병 앓은 막내아들을 껴안고  
통곡으로 눈물마저 말랐을 때

희망을 잃지 말라 깨우쳐준 오빠 !

여든해라는 엄청난 세월  
변심없이 살아가는 오빠의 멋진 삶  
눈물대신 호탕한 웃음으로  
함께 가자 이끌어준 그 믿음이어

기나긴 세월 교단을 지키다  
퇴직의 날 함께 맞이한 우리  
초소를 떠났어도 설줄 모르는건  
우리 오누이의 팔자일가요

오빠는 《산수》 나는 《희수》  
백발은 성성해도 마음은 청춘  
그런 오빠가 나는 좋아  
이런 오누이가 난 자랑스러워

-오빠의 《산수》 생신날에

## 중 심

김 윤 순

중심을 잡아라  
배 넘어간다  
폭풍우 몰아쳐도  
가야 할 길 남았거니

중심을 잡아라  
정신을 차려라  
잔치는 멀었다  
넋 놓지 말아라

중심을 잡아라  
구름덮인 북극성  
등대를 찾아라  
중심을 낮춰라

## 대동강아 나의 어머니강아

김 철 혁

수양버들 휘늘어진 너의 기슭에  
태를 묻고 자랐노라  
맑은 너의 물을 마시며  
잔뼈를 굳혔노라

대동강아  
나를 키워준 요람의 강아  
너의 강변 가로등은  
시험공부에 열중하던 나의 조명등이었고  
서느러운 밤바람은 피곤을 쫓아내며  
나의 사색을 지켜준 길동무였다

너의 물결에 몸을 실을적엔  
나에게 그 어떤 풍랑도 헤쳐갈  
굳센 담을 키워주었고  
중학교졸업의 날 동무들과 함께 맞이한  
너의 장쾌한 아침해돋이는  
내 가슴에 꺼질줄 모르는

열정의 불길 지펴주었다

나의 발걸음마다에서  
너의 물소리 울리지 않았다면  
내 어이 강행군의 극한점을 넘어섰으랴  
내 지켜선 전초선의 노을에  
너의 강변 불멸의 봉화가  
어려오지 않았다면  
내 어이 흑한속에서 아침해를 맞이했으랴

아, 훈장메달 절령이며 돌아온 이 아들을  
흰 물갈기 일으켜 두팔 벌려 안아준 강아  
너와의 뜨거운 그 상봉은  
다 자란 씩씩한 아들과  
온넛을 다 바쳐 키워준 어머니가  
하나로 더욱 굳게 합쳐지는  
모습이 아니었더냐

어려울 땐  
밝은 희망의 속삭임으로  
내 맡은 일에 지쳐 풋잠이 들었을 땐

힘찬 고무의 격랑으로  
내 가슴속에 울린  
출렁출렁 너의 물결소리는  
진정 엄하고도 다심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더라

홍하는 이 세월에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비껴신고  
흘러흐르는 강아  
너의 장려한 이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열백번이라도 다시  
싸움터에 뛰어들리라

내 삶의 젓줄기  
내 운명의 젓줄기  
아, 대동강 나의 어머니강아 !

(조선거주)



## 신보를 읽던 밤

김 성 철

조청일군인 남편과 교원인 안해  
우리 말 소양을 서로 더 높이자고  
새 가정 꾸려놓고 선참으로 시작한  
조선신보 소리내여 번갈아읽기

남편이 읽는 천리마조국소식에  
안해가 《야 !》 환성을 올리고  
안해가 읽어주는 동포소식에  
남편의 눈시울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하루 일 끝내고 몸은 지쳤어도  
밤마다 울리는 글읽는 소리  
부부의 결심이 하도 대견해  
하늘의 별들도 유난히 반짝이고

하지만 날이갈수록 안해는 자꾸만 꾸벅꾸벅  
一오죽 힘들었으면...  
마침내 잠이든 안해의 얼굴을

남편은 사랑넘친 눈길로 보고 또 보고

변갈아읽기는 《각자읽기!》로 변했어도  
애국애족의 길 함께 걸어온 부부  
고령의 오늘날에도 정답게 추억하는  
못잊을 조선신보 변갈아읽기시간...

아, 창간 80 년을 맞는 《조선신보》  
그대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 그 누가 알려주랴  
바라건대 아름답고 슬기로운 동포들의 모습  
100 년을 우리 집에 갖다주렴아

## 코노래

김 애 미

운동회 종목 마지막에  
이 노래 흐르면  
학생들이랑 선생님, 학부모들이  
손을 잡아  
큰 동그라미 이루어  
춤을 춘다

그게 보기 좋아  
노래가 좋아  
후렴구가 가슴을 울리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손과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  
쓰라린 나날을  
노래부르면서 이겨왔건만

오늘의 나는  
하고픈 말 누르고  
코노래로 부르네

닐리리 닐리리야  
흥흥 무지개  
...

영원한 소원  
우리의 큰 동그라미  
가슴속에 그리면서

가사

## 빛나라, 고베초중 !

심 달 야

조국의 사랑으로 동포들의 지성으로  
4.24 의 기상안고 보란듯이 일떠선 학교  
고베의 한복판에 민족의 위용떨치며  
대진재 이긴 힘으로 선대들의 넋을 이어가리라  
아, 힘을 모아 지혜모아 사랑모아  
빛나라 고베조선초중급학교

웃음꽃 만발하는 정다운 배움터에  
우리 말 우리 글 교실마다 울려퍼지네  
푸르른 잔디위에 참다운 우정 키우니  
마야산 손을 흔들고 아까시바다 춤을 추네  
아, 힘을 모아 지혜모아 사랑모아  
빛나라 고베조선초중급학교

아, 힘을 모아 지혜모아 사랑모아  
빛나라 고베조선초중급학교

-고베조선초중급학교창립 80 돌을 기념하여

## 맨날 같은 말

박 태 진

아버지가 식탁에서 한마디 한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당신은 맨날 같은 소리야  
하고 말한다  
나는 이 주고받음이 싫지 않다

맨날 같은 말만 하는  
아버지의 마무리는 언제나  
-어쨌든 믿고 아끼고  
다정하게 살면 그걸로 좋은거야

어김없이 반복되는 계절처럼  
세련된 시어처럼  
변치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는 맨날 같은 말만 한다

## 포동포동

하 의 배

너무도 작고  
모든것이 얇아  
안아보는것조차 겁이 났던  
아가야

손바닥만 한  
네 몸에 흐르는  
5 세 피줄기에도  
혹시나 ...

이 세상이 험하다는게  
벌써 새겨져있는지  
안간힘을 써서  
울다가도 용케 젖을 먹더니

나날이 얼굴은 하얘지고  
온몸에 살이 붙어  
어느새 똥똥

보듬기에는 딱 좋은데

이런것이 세월이런가

아가야, 네가 포동포동해질 때

내 얼굴엔 주름살 더 깊어지고

어느새 이내 몸은 쭈글쭈글



## 소 금

리 유 실

국물 끓일 때  
간 맞추는것

김치 담글 때  
배추 절이는것

색깔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아주는것

먼 옛날엔 《하얀 금》이라  
나라의 흥망성쇠 좌우한것

장례식 다녀온 뒤에  
뿌리면 악운을 쫓아주는것

늘 곁에 있는것  
없어서는 못 사는것

네 땀에

내 피에

우리 삶에

우리 눈물에

조선동해 바다물에도

다 녹아있는것

## 유끼오

진 승 원

나는 싸웠다  
열살때  
동네 골목대장  
세살우 유끼오하고

맞아도 맞아도  
달려들었다  
울엄마 안 추접다고  
마늘내 안 난다고

몇차례째 맞으면서  
눈앞의 턱을 놓칠세라  
안간힘으로 주먹을 박았다  
유끼오가 꼬꾸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무슨 싸움질이야 꾸중 들어도

곁에서 턱 잡아 울어대어도

제엄마 따라

잘못했다 사과왔을 땐

어머니의 눈짓에 못이겨

고개 쳐들고 손 잡았었지

세월은 흘러 25 년

어머니가 가시는 날

어디서 들었나 유끼오가

눈물 뚝뚝 향을 올릴 때

나는 울었다

쏟아지는 눈물을

어쩔수 없어

소리죽여 울었다

식구처럼 드나들며

어머니 김치가 별맛이라

하하 웃던 나날들을

못 잊는구나

## 《한술밥》 친구들

서 정 인

1

-선생님, 다름이 없으십니다  
졸업생들 인사말로 이래줄 때  
걸으로는 웃어도  
속은 바싹 조심스러워진다

나오기 전에 사진도 보고  
되풀이 이름들을 익혔건만  
선뜻 자신있게 불러주지 못할 땐  
후회의 낮과 밤이 이어지기에

2

열여덟에 만나서  
반세기를 아는 사이  
한지붕아래서  
한술밥 먹던 나날,  
저마다 일터에서 한몫 하느라  
숨가쁘게 푸른 꿈 키워가던 시절...

되돌아보니 더불어 쌓은건  
고운 추억만은 아니여도  
마주하고보니  
모든것이 웃음속에 달게 녹아나는  
이럴수 있는게 동기동창  
그래서 너희는 미운 정까지 합하여  
누구나가 《고마운 사람들》

3

손바닥의 전화기  
두드리기만 하면  
해외의 얼굴도 찾을수 있는  
이러는 세월일수록 더더욱

화면너머로 정을 나누기보다  
곁에 앉아 시시한 말 주고받으며  
어깨동무하는  
이런 시간이 좋구려  
안 그러냐, 친구들아?!

## 후래삼배

리 일 렬

사람들은 나를 보고  
《술고래》라 한다  
유감이지만 나는 술 잘 못 마신다

그런 우리 집 살림방 당반우에  
북녘의 친구가 준 《송이버섯술》  
남녘의 친구가 준 《포도주》  
그리고 대학친구가 준 《청주》가  
주인을 잃은듯 오랜 세월 《서있다》

아이들은 술이 《아깝다》 하고  
안해는 《받은 정 마셔야 한다》 하며  
지인들 내게 술맛 몰라 《불행하다》 한다

과연 그럴가?  
다들 《조언》 고맙기도 하는데  
나는 그저...

흩어져 사는 친구들  
우리 집에 모이는 날  
《특별주》를 빚어주며  
흘리간 오랜 세월에 후래삼배  
친구들 너무 늦었다면서 후래삼배  
《술고래》도 너도나도 함께 후래삼배할

그날을  
그날을 그릴뿐이여라...



## 정성의 향기

최영실

어서 병을 털고 일어나라고  
친혈육인양 따듯이 돌보아주니  
이 마음  
어머니 보살핌에 온몸을 맡긴  
철없는 어린애심정이런듯

며칠전 급병으로  
수술대에 누웠던 이 몸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제일먼저 눈앞에 보이는것은  
위생복 입은 의사선생님

오늘따라 저 위생복의 흰빛  
왜 이다지도 눈에 부실가  
어쩌면 이리도 마음에  
따스한 온기와 안정을 가져다주는걸가

고마움에 뭉클 젖어오는 가슴이여  
나는 행복한 생각에 잠깁니다  
그 하얀 빛에서 뿜어져나오는건  
순결한 사랑인가 사심없는 마음인가  
그것은 정녕 정성 !  
정성의 아름다운 빛이여라

정성 !  
이 땅에만 울리는 사랑의 부름  
그것은 친형제 한식술을 위해 바치는  
무한한 헌신이란 말이 아니라

아, 끝없이 젖어드는 이 가슴  
소중히 심어주신 정성의 씨앗  
거목으로 키워주셨거니  
오늘은 이 땅위에 무병무탈의 무릉도원  
아름답게 더 만발하게 가꿔주시나니

사랑이 흐르고  
인간애가 비끼여  
불러보고 또 불러보는 마음

인간사랑의 대화원에 넘쳐흐르는  
향기여 정성의 향기여

(조선거주)

## 그립던 품으로

양금녀

얼마나 가고싶었더냐  
얼마나 그려보았더냐  
억울하다고 안타깝다고 울던  
4년전의 그날이 생생히 떠오르는구나

누구를 탓할수도 없고  
어디다 하소연할수도 없던  
너희들의 아쉬움과 서운함을  
이 선생도 달랠길 없었는데

너희들은 기다림의 세월동안  
애타는 그리움을 키워왔었지  
모교를 떠나가던 그날에도  
대학에서 청춘을 누릴 때에도  
가슴속에 공화국기 모시고 살아왔었지

기다린것은 너희들뿐이었나  
그때 내가 말했었지

너희들 마음속에 조국이 있는 한  
조국이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고  
어머니조국은 너희들을 기다리고있다고

조국은 기다림의 세월동안  
갖은 시련을 복으로 바꾸어  
천지개벽을 이루었던다  
더욱 강대한 모습으로  
더욱 긍지높은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왔단다

아,너희들은 드디어  
그 품에로 달려갔구나!  
끝내 소원을 이루었구나!  
어머니조국을 만났구나!

오랜 기다림만큼이나 특별하겠지  
황홀한 수도의 새 거리도 거닐고  
별천지 갈마도 남먼저 찾아가고  
양덕에선 온천물에 스르르 녹아나고  
국경절 빙상공연에 감탄을 터치고

그리도 그림던 백두산에도 올랐으니

화면너머 기쁨넘친 얼굴들 향해  
감회에 잠겨 저도 모르게 불쑥  
《겨우 왔구나...》

그제서야 스스로 깨달았다네  
내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는지

그래, 너희들도 이제야 알걸  
그 품에 안긴 사람이라면 다  
풀리지 않는 마법에 걸린다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나 떠나지 못할걸  
조국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으니  
이 선생처럼...

## 잇는다

허 옥 녀

오사까부청앞 남측통로의 한자리  
거기는 민족강사 박령희선생님이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 빼앗지 말라고  
10 년을 하루같이 호소하신 자리

소원을 못 꾀 채 돌아가셨건만  
령희선생의 넋이 스며든 이 자리에  
선생님의 원한이 스며든 이 자리에  
일본친구 하라또(原戸)씨가 서시였다

민족의 차이를 따져서 무엇하랴  
뜻을 함께 하여 싸운 10 년세월  
우리들은 동지가 되지 않았느냐고  
령희선생의 뒤편까지 내가 나서겠다고

부청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지나야 할 이 자리  
승리의 그날까지

절대로 비워서는 안될 자리 !

《조선학교아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 》

구호판 높이 든 하라또씨

정의로운 이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다 령희선생과 함께

우리모두의 각오를 가슴에 새겨

《잇는다》

오직 그 한마음으로 !



## 애국의 붓을 놓지 않은 로시인에게

변 홍 영

반갑다 총련의 로시인이여  
《로동신문》 지면에서  
그대 소식 접한 이 마음  
젊었던 시절의 그대를 다시 만난듯  
류다른 감회에 젖어오는구나

지난해말  
문예동결성 65 툇기념 문예발표모임에서  
자작시를 읊어 장내를 뒤울렸다는  
이제는 백발이 성성했을 그 모습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누나

대동강 푸른 물이 한눈에 안겨오는  
평양호텔의 서느러운 창가에서  
조국에 온 총련의 시인들과  
내 처음 상봉했던 그 나날들이 어제런듯  
조국방문의 나날  
시를 완성하며 열정을 끓이던  
젊은 날의 그 모습 오늘도 내앞에 웃고있다

만수대언덕을 오르며  
한없는 그리움에 젖던  
충성의 그 눈물이 글줄마다 뜨겁고  
대동강해맞이를 마중하며 끓어솟던  
애국의 그 녀이 시행마다 넘치던  
그 시편들

탁상을 마주하고  
그대가 쓴 한편한편의 시들을  
함께 론하던 그 나날들을 내 어이 잊었으랴  
우리 서로 작별한지도  
어언 30년세월이 흘렀건만  
다정다감한 그 목소리 귀전에 다시 울린다

이제 80 고령의 나이를  
지척에 둔 그대 녀류시인이여  
내 지금 그대의 시집을 펼치고  
《조선문학》지면에 발표되었던  
그날의 시들을 다시 읽으며  
로시인의 애국의 한생을 새겨보나니

감개도 무량하구나  
바람찬 오사까의 하늘아래서  
한생토록 총련의 교단을 지켜온 그대  
일본반동들의 갇은 모략과 박해속에서도  
조선의 순결한 녀과 정신을  
후대들의 가슴에 굳세게 이어주며  
얼마나 숭고한 애국의 한길을 왔던가

그대 지은 수백편의 시와 노래는  
태어나고태어나는 총련 새 세대들의 마음에  
조국의 목소리로 랑랑히 울리고  
민족의 녀를 지켜 싸우는 동포들의 대오에  
투쟁의 힘찬 숨결로 고동치도다

아아, 수만리 먼 이역에서도  
조국과 함께 하는 생은  
그처럼 아름답고 고결한것이구나  
젊어서도 애국  
고령에도 애국  
참되도다  
오직 이 한길만을 아는 시인의 삶이여!

오, 충심으로부터 축복을 보내노라  
오늘도 래일도 우리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의 붓을 놓지 않을 그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무궁번영할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그대 드리는 찬가는 끝없이 울려가리라

- 《조선문학》 2025 년 7 호에서 옮김

## 104 호 후기

조선의 저명한 시인이 재일조선문학인들을 고무격려해주셨다는 고마운 소식을 들었다. 비록 마음이 내키는대로 만나볼수는 없어도 서로의 《글》로 전해지고 전해져오는것은 오히려 문학인들답다고나 해야 할는지. 그러고보니 훈민정음으로 엮어내는 우리의 이 짧은 시지도 그누구의 손바닥에서 만사람의 가슴에 스며들어갈수도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자각하게 된다. 《가을》이라는 이 좋은 계절을 타고 더 많이, 더 널리에 전파되여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려면 우선 ... . 되새긴다. (인)

=====

## 詩誌 종 소 리

---

|        |                          |
|--------|--------------------------|
| 発行     | 《종소리》詩人会                 |
| 代表・編集  | 徐正人      校正 韓誠宇          |
| e-mail | sousakukadai@yahoo.co.jp |
| 発行日    | 2025 年 10 月 10 日 (日本・東京) |

##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종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종소리》를 사랑해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파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関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십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